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웰킨

The Welkin

6.7-6.2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 2022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까지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2년에는 ‘공정’을 주제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공정 Fairness

신은, 혹은 자연은 공정하지 않다.

만물은 다르게 생겼고 다른 위치를 갖는다. 고르고 균일할 것 같은 원자 상태에서조차 에너지의 상태가 다르다. 원자를 벗어나 단위가 커질수록 다른 점이 늘어나고 차이는 더 벌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독특하게 생겼다는 것이 이치인 셈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쓰임도 다르고 역할도 따로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와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이고 그것은 ‘공정’을 기초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가 다른 형태와 능력을 지녔지만, 그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한 인격체라는 것에는 모순이 없는가? 모든 것이 똑같은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두 곳의 온도가 같다면 둘 사이에 열은 흐르지 않는다. 두 곳의 농도가 같다면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한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차이와 불균형은 긴장을 낳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 이 세계가 에너지와 활기차게 움직이면서도 ‘공정’을 구현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공정’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이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세대, 성별, 인종 등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공정’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움직임을 어떻게 미래를 향한 힘으로 다듬을 수 있을까?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강연

연강홀

4.4	‘공정’이란 무엇인가?	최정규
4.11	대한민국 능력주의의 뿌리	김호
4.18	공정의 역습-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정’	천관율
4.25	공정과 불평등	송지우
5.9	공정함을 원하는 뇌, 그리고 행동	김학진
5.16	공정과 성차, 그리고 과학	임소연
5.23	공정, 미래 조직의 핵심 가치	김정희원
5.30	비례적인 권리와 반비례적인 사랑	김원영

전시

두산갤러리

Skyline Forms On Earthline

4.20-5.25

작가 김민정 문서진 최태윤 황예지

공연

Space111

당선자 없음

5.17-5.29

작·드라마터그 이양구
연출 이연주

출연 김상보 박수진 신강수 이윤재
이주영 황은후

월킨

6.7-6.25

작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번역 김수아
연출 진해정

출연 고윤희 김별 김정아 라소영 민대식 백종승
부진서 송영주 송인성 안민영 이선주 이세영
이정미 이하영 하지은

편입생

7.5-7.23

작 루시 서버(Lucy Thurber)
번역 한원희

연출 윤혜숙
출연 공상아 김하람 이지현 조의진 최호영

공연 소개

〈웰킨〉은 〈차이메리카〉로 잘 알려진 영국 극작가 루시 커크우드의 신작이다. 나이, 출신, 인종, 계급이 다른 12명의 여성들이 한 사건의 배심원으로 모인다. 여성들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계급·종교·법·성별 등의 공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쟁한다. 〈웰킨〉은 2020년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에서 초연했으며, 한국에서는 두산인문극장을 통해 첫 선을 보인다.



작가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연극

〈The Welkin〉 〈Mosquitoes〉 〈The Children〉
〈Chimerica〉 〈Hansel and Gretel〉 〈NSFW〉 〈Housekeeping〉
〈The Small Hours〉 〈Beauty and the Beast〉 〈Bloody Wimmin〉
〈It Felt Empty When the Heart Went At First But It Is Alright Now〉
〈Psychogeography〉 〈Hedda〉 〈Tinderbox〉 외

TV 드라마 대본

〈Skins〉 〈The Smoke〉

라디오

〈Guns or Butter〉 BBC RADIO

수상

2014 영국 올리비에 어워드 작품상 〈차이메리카 Chimerica〉
2013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 어워드 작품상 〈차이메리카 Chimerica〉
영국 수잔 스미스 블랙번상
영국 평론가협회 작품상

〈웰킨〉 해외 리뷰

Witty and dazzling. A thing of beauty.

재치있고 황홀하다 아름다운 작품.

-The Upcoming-

A fiercely pertinent drama for our time.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드라마.

- Metro-

Brilliant, brave and bold.

용감하고 대단하다.

-WhatsOnStage-

Thumpingly great. Kirkwood is a genius.

정말이지 굉장하다. 커크우드는 천재다.

-Daily Mail-

A mighty new play. Magnificent.

강력한 신작. 감명깊다.

-Financial Times-

연출

진해정

DAC Artist

창작집단 프로젝트 이어

제작·각색·연출

〈귀여한 낭독극장〉〈제2회 귀여한 낭독극장〉

제작·연출

〈로테르담〉〈아웃 오브 러브〉〈네가 있던 풍경〉

수상

2020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로테르담〉



연출 노트

〈웰킨〉을 만나는 동안 하늘과 땅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누구에게 닫혀 있는지.

땅은 어떤 이들에게 관대하며, 어떤 이들에게 가혹한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며 지금의 나를,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웰킨〉이, 지금의 하늘과 땅을 한 뼘이나마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번역 및 각색

연극 <웰킨> <로테르담>

번역

연극 <트레인스포팅> <슬루스> <베드룸파스>

번역 및 한국어 극본, 가사

뮤지컬 <신데렐라> <체스>

번역 노트

루시 커쿠우드의 '웰킨(The Welkin)'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20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작가의 전작들인 '차이메리카(Chimerica)', '더 칠드런(The Children)'을 인상깊게 보았는데 '웰킨' 작업 제안을 받자마자 선뜻,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고 그렇게 덜컥, 이 여정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번역물 가운데 손에 꼽히게 까다로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제목부터도 낯선 이 작품이, 단순히 고어가 많은 시대극이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웰킨'은 젠더, 사회, 계급, 종교적 레이어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으면서도 아주 특정한 분위기를 가진, 그 뉘앙스와 분위기를 옮겨 내는 것이 극의 한 요소로 꼭 필요한 텍스트였습니다.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 텍스트 번역은 발화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기에, 평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은 하되 '제 해석으로 완성된 최종본'을 굳히기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웰킨' 작업을 하면서는 다른 창작자나 배우들을 만나기 전 초고 단계부터도, 오직 원문의 의미에 최대한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없는 비교와 선택을 거쳐야 했습니다. 고어, 방언 사전과 연구자료를 참고하고, 사회 역사적 상황을 리서치하고, 인터넷 포럼 등을 통해 어떤 표현과 상황에 대한 탐색을 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더욱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을까? 이런 뜻이 더 맞을까? 이런 말이 더 맞을까?'라는 질문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던졌습니다. 더 나은 번역, 더 나은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은 아마 공연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웰킨'이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다층적이고 독특한 언어를 품은 희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저자 루시 커쿠우드는 이 작품에 '역사, 사회적 배경을 언어적으로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극을 감상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 설사 그 단어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 그게 무슨 말인지 본능적으로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소 낡고 낯설더라도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글과 말이 드디어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먼 땅에서 쓰여진 먼 시대, 먼 곳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바로 여기서 저희들이 전하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복잡한 작품을 있는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놉시스

1759년 영국의 외딴 지역에서 마을 유지의 딸이 잔혹하게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된다. 용의자는 유지의 저택에서 하녀로 일하던 21세 여성 샬리 포피.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 사실에 분노하고, 결국 샬리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며 감형을 탄원한다. 나이, 출신, 인종, 계급이 다른 여성들이 임신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법정 위층에 자리한 다락방으로 모이고, 샬리의 목숨은 이 12명의 여자들에게 달린다.

“방법”을 찾아내는 여자들

오혜진(문학평론가)

“성경에 오른손을 올리십시오. 당신은 부녀 배심원의 대표로서 피고 셸리 포피의 임신 여부에 대해 성실히 질문하고 조사하고 심판할 것을, 본인의 기량과 지식을 토대로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하느님 앞에서 선서하십시오.”

1759년 3월, 열두 명의 여자들이 법원 위층의 좁고 텅 빈 다락방에 모인다. “음식, 음료, 불, 양초”의 사용이 금지된 이 방에서 이들은 지금 한 여자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아동살해죄로 교수형을 언도 받은 셸리가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셸리는 감형될 것이다. 자,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아온 여자들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정의라는 거 찾기엔 정말 형편없는 무리”로 보이는 그녀들의 “기량과 지식”이란 믿을 만한 것일까?

극작가 루시 커쿠우드가 “집안일에 관한 연극”이라고 소개한 바 있는 <웰킨>은 대부분의 토지가 소수 지배엘리트에게 넘어가고 무산자의 비율이 증가하던 시기, 영아사망률은 높고, 여성 노동인구 3분의 1이 허녀였으며, 나머지는 농장일·방직·뜨개질·자수·보따리장사·유모같은 가내활동에 종사하던 18세기 중반 영국 하층여성의 삶과 경험을 무대 위에 올린다.

잘 알려졌다시피,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결코 높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빈번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주어진 ‘아내를 훈육할 권리’에만 손을 들어줬다. 법은 남편의 간통에는 관대했지만 여성에게는 형벌을 내렸다. 하지만 당대의 여성을 그저 ‘주체성이 박탈된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은 선부르다. 역사학자 조앤 스콧은 당시 남성은 물리적·법적 권력을 가진 반면, 여성은 빈약하나마 가족의 재정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별권력이 배분돼 있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참정권을 갖지 못한 서민계층 여성들이 벌인 저항의 정치도 주목된다. 이를테면, 여성들은 빵과 곡물의 가격 폭동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이는 등 가족을 먹이는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7~18세기에 여성들이 허리띠에 칼을 차고 시장에 와 곡식을 강탈해갔다거나, “막대기와 뿔을 든 한 여성”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야기, “남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으며, 매우 광폭”하고 “성난 여성들이 일으킨” 난동에 대한 기록들은 적지 않다.²

이 같은 당대 하층계급 여성들이 지닌 제한적인 권리와 잠재적인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까. 루시 커쿠우드는 열두 명의 여성들에게 셸리의 죄를 결정할 권력은 주지 않은 반면, 여성 고유의 삶과 경험이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임신’이라는 사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조절·통제돼온 방식을 재현한다. 나이, 인종, 지역, 직업, 문화적 배경, 출산 경험, 성적 지향 등이 서로 다른 열두 명의 여자들. 이 중에는 셸리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여자도 있고, 셸리와 원한관계 또는 유대관계를 가진 여자도 있다. 이들은 때때로 부정확한 목격과 편파적인 증언에 기대 셸리의 도덕성을 심판하려는 유혹에 빠지면서도, 육안 관찰, 촉진, 문답, 신체변화에 대한 분석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셸리의 임신 여부를 알아내려 애쓴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자들 의 서로 다른 경험은 여성신체를 자명한 생물학적·의료적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를 거듭 실패에 빠뜨린다. 과연 각종 미신과 주술, 기도와 마법, 불안정한 경험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민간요법의 세계에서 과학과 의학, 사법권력이 인정하는 이성적·합리적 진실은 찾아질까.

이에 대한 <웰킨>의 태도는 교묘하고도 선동적이다. 물론 이 작품의 표면적인 서사는 남성권력에 종속돼 있던 여성들의 불안전하고 비공식적인 삶과 경험을 가시화하고, 그것들이 공모·경합하는 장면을 여성연대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단초로서 사유하도록 유도한다. “빨랫줄에 빨래 널 때 빠곤”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볼” 일 없는 여자들에게 드물게 제안된 이 ‘숙의’의 경험, 즉 “시민의 책무”는 “성가신 일거리”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집밖에 있었던 게 너무 좋았”을 만큼 소중한 탈일상의 모험이다. 그런데 극중 제시된 모든 금기가 위반되고 비밀이 폭로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웰킨>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단지 하층여성들의 “기량과 지식”만은 아니었다. 알갭게도, <웰킨>은 여성의 지적·도덕적 역량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간직한 관객의 기대 또한 이 법정에 회부해 심문에 부친다.

단적으로 말해, <웰킨>에는 ‘옹호할 만한 악인’으로 여겨지는 여성범죄자,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지혜로운 여성영웅, 순정하고 무해한 공감능력과 동정심을 가진 여성동료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셸리가 지루하고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러오는 에로스적 판타지, 남자친구와 함께 “나보다 많이 가진 녀은 다 죽여버리”자고 다짐하는 셸리의 계획, (유사)모성으로 등장하는 산파 ‘엘리자베스’의 숨겨진 내력, 셸리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헬렌’의 복잡한 내적 동기, 셸리에 대한 단죄를 은밀히 소망한 ‘샬롯’의 정체는 여성을 그저 ‘도덕의 화신’이나 ‘무고하고 취약한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욕망을 유보하게 만든다.

이 작품에 배움처럼 깔린 마녀사냥의 모티프가 한층 흥미로워지는 것도 이 지점이다. 이 작품에서 죄수의 목이 매달리기를 기다리는 성난 군중의 함성은 셸리와 열두 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할 때 엄청난 위협이자 공포로 작동한다. 이런 설정은 두말할 것 없이, 주로 여성을 처벌해온 남성화된 집단의 폭력적 열정의 산물인 마녀사냥의 구도를 차용한 것이다. 특히 16~17세기 유럽에서 여성이 사형당하는 죄목들 중 가장 많은 것이 ‘마녀행위’와 ‘영아살해’였다는 점은 마을의 산파이자 치료사로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약초와 치료법을 설파해 ‘마법’을 부린다는 혐의를 쓰곤 했던 엘리자베스, 그리고 ‘음란한 여성’이자 ‘아동살해범’으로 지목된 셸리를 마녀사냥 피해의 또렷한 형상으로 떠오르게 한다.

다만 이때 의미심장한 것은, 17세기 유럽에서 영아살해와 마녀행위가 여성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드문 사례였다는 점이다. 마녀와 영아살해자로 고발당한 여성들은 유럽에서 최초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상 성인의 자격을 인정받아 법정에 걸어들어갔다.³ 이는 여성을 법적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당대 사법체계에 서 영아살해와 마녀행위가 그 예외로 인정될 만큼 중한 범죄로 간주됐음을 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혐의를 쓴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된 타자 혹은 비존재가 아니라, 분명 ‘행위자player’로서 각인됐음을 보여준다. 셸리도 말했지 않은가. “난 토마스 맥케이의 희생자가 아니야.”

누군가를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그가 ‘죄 없는 자’임을 확신하기에 확보되는 화자의 도덕적 우위와 안전한 위치에 대한 욕망이 서려 있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대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교란을 촉발하는 불온하고 위험한 여성이 ‘마녀’로 불려온 역사를 상기한다면,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건강한 욕망을 가진 여성만을 여성서사에 걸맞은 인물로서 승인하고자 하는 욕망은 마녀사냥의 문화정치와 얼마나 먼 거리에 있을까. <웰킨>은 기존의 도덕질서에 기대는 것 외에도 하층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감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걸 알려준다. “늘 참는 여자. 늘 똑같은 여자. 쫓까.”

그렇다면 하층여성들의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삶과 경험이 근대의 이성적·합리적 언어로 번역될 수 있을지 시험하던 <웰킨>은 이제 관객에게 좀 다르게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소수자의 자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탈규범적인 욕망과 실천들을 안전한 도덕의 잣대 없이 그 자체로 직시할 수 있느냐고. ‘숙의민주주의’란 바로 이를 위해 용기를 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겠느냐고. “다음 혜성이 올 때 우린 어떤 모습일까.”

¹ “Lucy Kirkwood on going from kitchen to courthouse with ‘The Welkin’”, *Financial Times*, 2020. 1. 10.

² 조앤 스콧·루이스 킬리, 김영 역, 「여성 노동 가족—근대 유럽의 여성노동과 가족전략」, 앨피, 2021.

³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캘리번과 마녀—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갈무리, 2011.

핼리혜성이란?

핼리혜성은 지구에 약 75.3년을 주기로 타원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되돌아오는 해왕성족 주기 혜성이다. 일반인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혜성인데, 이는 비교적 주기가 짧은 것 중에서 망원경과 같은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혜성이기 때문이다. 76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혜성 중에는 주기가 몇 천 년인 것도 수두룩한 것을 보면 매우 짧은 편이다. 또 주기가 짧은 다른 혜성은 어두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근일점이 지난 것이 1986년 2월 9일이었으니, 다시 핼리혜성을 보려면 2061년이 되어야 한다.

출처_나무위키

핼리혜성의 발견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혜성은 매우 불길하고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신이 경고하기 위해 혜성을 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1687년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법칙을 발표하였고, 뉴턴의 친구인 애드먼드 핼리(1656~1742)는 과거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76년 전인 1607년, 그리고 다시 76년 전인 1531년, 1456년에 밝은 혜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뉴턴역학이 얼마나 정확한 이론인지를 최초로 증명한 셈이었다. 그 뒤로 그 혜성을 핼리의 이름을 따서 핼리혜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혜성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 혜성이 올 때, 우리 어떤 모습일까?



1759년 새뮤얼 스콧이 그린 혜성



1986년 촬영된 핼리혜성

이미지 출처: NASA

키티 기븐스
Kitty Givens

고윤희

연극

〈사소한 것들〉 〈페스트〉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네가 있던 풍경〉 〈귀여한 낭독극장〉 외



샬리 포피
Sally Poppy

김별

연극

〈로테르담〉 〈초록빛목소리〉 〈작가〉 〈사라져, 사라지지마〉 〈영지〉

〈모던걸타임즈〉 〈녹색광선〉 〈조건만남, 기억이란 사랑보다〉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좋아하고 있어〉 외



사라 홀리스
Sarah Hollis

김정아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춤의 국가〉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베서니 집〉
〈상주국수집〉 〈비밀경찰〉 외



매리 미들턴
Mary Middleton

라소영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 〈레인독스〉 〈홍평국전〉 〈DRAG X 남장신사〉 〈픽킹 젠더〉
〈웃기는 어둠〉 〈작가〉 〈괄호는 괄호와 괄호사이 괄호가 될 수 있을까〉
〈발판〉 〈레몬 사이다 씹머 클린샷〉 외



미스터 콤스
Mr Coombes

민대식

연극

〈하얀 동그라미 이야기〉〈빨〉〈게릴라 씨어터〉〈십이야〉〈토너먼트〉〈청춘,18대1〉
〈조선 연정 스캔들 호야〉〈죽도록 달린다〉〈모스키토〉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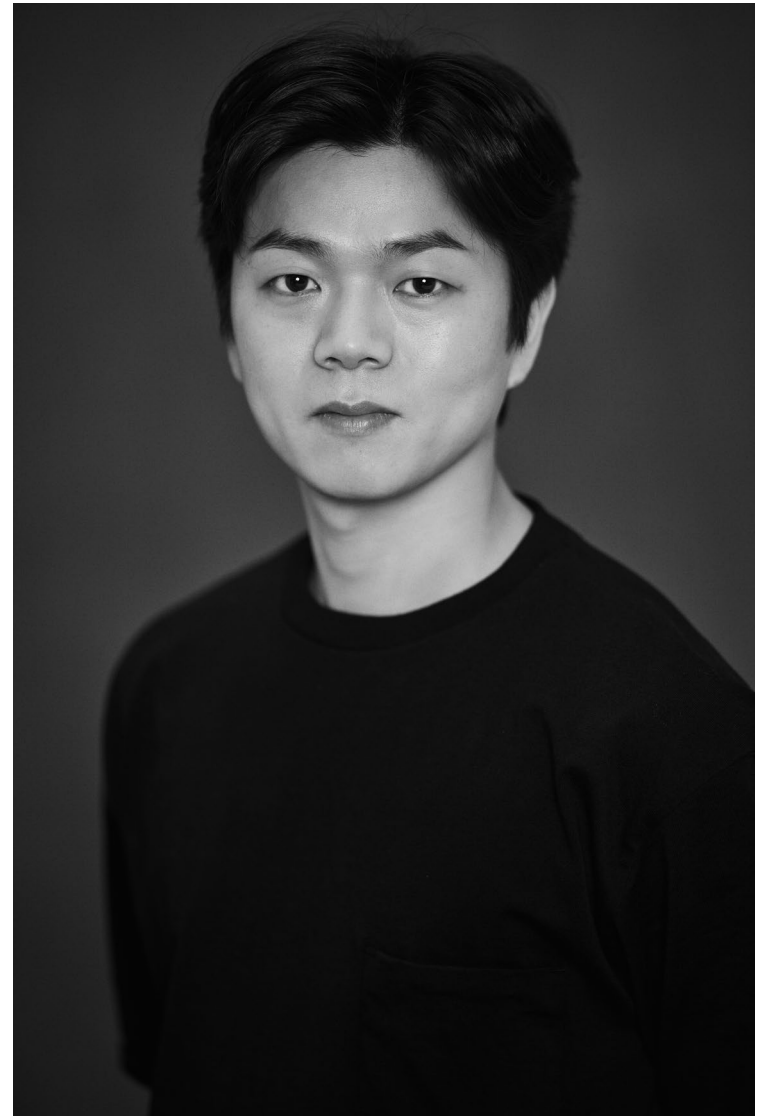


프레데릭 포피
Frederick Poppy
미스터 윌리스
Doctor Willis

백종승

연극

〈도쿄노트〉〈엑소더스〉〈그들의 적〉〈20세기 건담기建談記〉
〈상처투성이 운동장〉〈태풍기담〉〈모험왕&신 모험왕〉〈나는 바람〉
〈삼국유사 연극만발 - 무극의 삶〉〈단편소설 입체낭독극장〉
〈세 사람 있어〉〈소설가 구보씨의 1일〉 외



한나 러스테드
Hannah Rusted

부진서

연극

〈커튼〉〈픽킹 젠더〉〈피어리스 - 더 하이スクール 맥베스〉〈미의 기준〉
〈여된감상기 이계순전〉〈세컨드맨〉〈아리랑 랩소디〉〈새끼〉〈자전거〉
〈김유정의 봄봄〉〈템페스트〉〈마늘먹고 싹먹고〉 외



페그 카터
Peg Carter

송영주

연극

〈미스터셰프〉〈그류 그류〉〈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만리향〉
〈작가를 찾은 6인의 등장인물〉 외



엠마 젠킨스
Emma Jenkins

송인성

연극

〈스웨트〉 〈터널구간〉 〈하녀들〉 〈인어를 사랑하다〉 〈나는 꽃이 싫다〉
〈그녀들의 집〉 〈원더풀 초밥〉 〈듀스〉 〈서글퍼도 커튼콜〉 〈안티고네〉 〈시련〉 외

수상

2018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샬롯 캐리
Charlotte Cary

안민영

연극

〈행인두부의 이야기〉 〈그 남자 - 이육사〉 〈사이코패스 - 푸른수염 이야기〉
〈텃밭킬러〉 〈의붓 기억-억압된 것의 귀환〉 〈아무튼 백석〉 〈두뇌수술〉
〈물의 정거장〉 〈바람의 정거장〉 〈모래의 정거장〉 〈버스가 온다〉 〈적빈〉 〈겨울〉 외



사라 스미스
Sarah Smith

이선주

연극

〈착란〉 〈집집〉 〈킹스 스피치〉 〈꽃의 비밀〉 〈기묘여행〉 〈우쿠리 닌뇨노소〉
〈전화벨이 울린다〉 〈가벼운 스님들〉 〈사우나〉 〈국물 있습니다〉 〈억울한 여자〉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당신의 눈〉 〈웰즈로드 12번지〉 외



앤 라벤더
Ann Lavender

이세영

연극

〈머핀과 치와와〉 〈옥상 위 카우보이〉 〈느릿느릿 엉금엉금 거북이〉
〈추락II〉 〈추락I〉 외



주디스 브루어
Judith Brewer

이정미

연극

〈어린잎은 나란히〉 〈지정〉 〈달걀의 일〉 〈춤의 국가〉 〈그후〉 〈녹색광선〉
〈블루하츠〉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갈매기〉 〈미국아버지〉 〈꽃잎〉
〈과거의 여인〉 〈어느 여름날〉 외

수상

2019 이인극페스티벌 연기상

2013 서울연극제 연기상



헬렌 러드로
Helen Ludlow

이하영

연극

〈지장이있다〉 〈그림의 떡〉 〈도채비방쉬〉 〈연필을 꺾으며 내가 생각한 것〉
〈사라지지마!〉 〈파랑새〉 〈봄날의 후리지아처럼〉 〈비극놀이〉 〈요정의 왕〉 〈꽃불〉
〈리어 누아르〉 〈젊은 예술가의 초상〉 〈분노의 포도〉 〈그와 그녀의 옷장〉 외



하지은

연극

〈붉은 낙엽〉 〈비극〉 〈이방인들의 축제〉 〈고래가 산다〉 〈꽃은 사절 합니다〉
〈두산인문극장 2016 모험-게임〉 〈과거의 여인〉 〈상대방의 자리〉 〈레슬링 시즌〉
〈난 집에 있었지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외





연습노트

정리 김유림(조연출)

2021.8.21.~9.18. <웰킨> 프로덕션 연습이 시작되기 전 오해진 문학평론가의 <웰킨> 주제와 관련된 도서 읽기 세미나에 진해정 연출과 김수아 번역가, 하지은 배우가 참여했다. 연습 첫 주, 세미나 녹취록을 배우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진해정 <웰킨>의 배경과 관련될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보려고 가져온 작품들입니다.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보다는 작품에 힌트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피에르 리비에르』 미셸 푸코

오해진 표면적으로 <웰킨>은 '여자들의 삶과 경험은 항상 무시되어 온 데 반해, 남자들의 언어와 지식에는 늘 특권적 의미가 부여됐어'라는 젠더 대결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달리 보면, 산업화·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인 1759년, 영국의 법적 체계가 지금과 달랐던 시대에 어떻게 '합리성'이나 '합리적인 것', 이를테면 '사법적 판단의 근거'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나, 피에르 리비에르』도 그런 주제를 다루요.

진해정 임신한 샬리의 몸이 미스터리로 작용하는 지점.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질문을 하는 점이 재밌었다. 이정미 임신 증상에 대해 공통적인 지점도 있는데 사람마다 증상이 달라서 다양한 것들이 많다. 부진서 이 안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해 경합하는 것 같아 재밌었다. 진해정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땐 여성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 연대에 관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들게 했는데 세미나를 통해 그 선택이 재미없는 선택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이세영 혜성이 가진 응축된 에너지가 연대의 직전을 말하는 느낌이 든다. 연대는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해 참여할 때 힘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다들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생기지 않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치즈와 구더기』 카를로 긴즈부르크

오해진 <웰킨>의 목소리들은 여성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법체계'나 '왁스 부부'로 상징되는 남성계급과 지배계층에 대한 하층계급의 목소리, 즉 '위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신에게 말하는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계급화된 언어죠. ... 『치즈와 구더기』는 하층문화에 대한 연구—하층민이 어떻게 자기 언어와 논리와 인식을 만드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른 책입니다.

하지은 계급화된 언어라는 말이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진해정 계층에 따라 분화된 언어를 말한다. 상층계급이 남성적·지시적·현학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권위와 교양을 과시한다면, 하층계급은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친숙한 사물이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층계급이 고난도의 사유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층계급은 결국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언어를 통해서, 상류층의 전유물이라고 간주되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해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은 이 책에 나오는 '메노키오'라는 인물은 성경을 자신이 잘 아는 치즈, 버터, 구더기 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비유하여 이해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렸다. 이 안의 여성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집안일에 비유하는 것처럼.

『캘리번과 마녀』 실비아 페데리치

오해진 페데리치는 성차별이라는 '문화'에 대한 원인을 다시 '문화'에서 찾는 방식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차별은 문화적·관념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물질적인 토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해명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진해정 마녀사냥이 단지 사상적·종교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착취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경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라소영 노동자로서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여성들을 집안에 가두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 작품은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진해정 공정이라는 테마. 부가 누구에게 가는가, 부가 없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사유가 허락되는가 같은 것들이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았다.

오해진 『나, 피에르 리비에르』, 『치즈와 구더기』, 『캘리번과 마녀』는 결국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여성과 하층민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과 하층민이 축적한 삶과 교양이 억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해방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다시 만난’ <웰킨>의 무대를 준비하며...

“누구의 감각인가?”

2020년 여름, 코로나19의 한 가운데서 <웰킨>의 낭독공연에 참여한 것은 큰 위안이었다.
그리고 2022년 여름, ‘다시 만난’ <웰킨>의 세계는 새로운 질문과 작은 도전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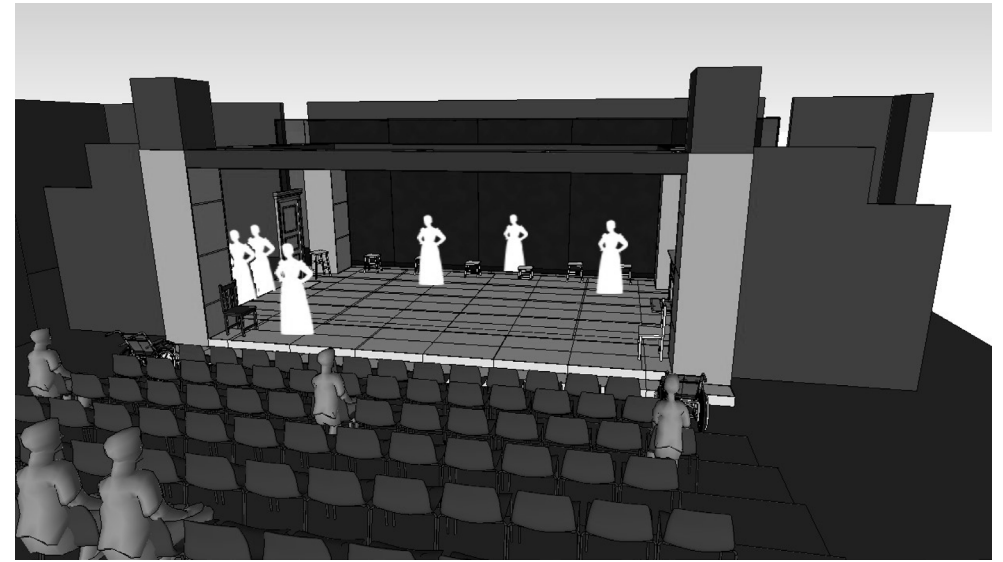
첫 연습 전까지 나누었던 공간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화에서 연출은 ‘감옥’에 대한 공간적 컨셉을 제시했고,
나는 ‘그 감옥에 대한 감각은 누구의 감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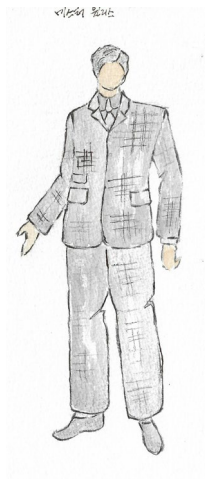
무대 위 배우들의 감각인가?

그들을 바라보는 객석의 관객들의 감각인가?

그렇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극장 모형의 객석과 무대의 전복과 해체를 반복하며 마침내 다다른 곳은
‘지상의 바닥과 하늘의 천장을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환경’이었다.

무대 위 열두 명의 배심원들과 샐리의 ‘그 감각’을 오늘, 관객들은 어떻게 감각하게 될까?





작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번역	김수아
연출	진해정
출연	고윤희 김별 김정아 라소영 민대식 백종승 부진서 송영주 송인성 안민영 이선주 이세영 이정미 이하영 하지는
조연출	김유림
무대감독	이지혜
무대디자이너	심채선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TDS손지희
무대제작	에스테이지(s-TAGe, 대표 이윤중)
제작팀장	정우상
제작팀	김세진 김용선 남기상 이승용 이종민 정병문 정우근 정재현 차승호
작화팀장	이남련
작화팀	신혜원 박윤경 박지원 조정숙
조명디자이너	신동선
조명어시스턴트	유보민
조명오퍼레이터	권오성
조명팀	이상혁 정주연 정하영 홍유진 홍주희
음악·음향디자이너	지미 세르
음향오퍼레이터	김유림
의상디자이너	메리엘(대표 오수현)
의상제작	곽영희 김재홍 노영철
의상어시스턴트	박효진
분장·소품디자이너	장경숙
분장진행	박진경 장경숙
소품디자인 어시스턴트	남혜연 박진경
안무	이소영
세미나 진행·텍스트 자문	오혜진

목소리출연	김결
제작협력	하지스토리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베르크
사진기록	서울사진관
영상기록	헤즈스튜디오
인쇄	청산인쇄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후원	두산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매니저	박찬종 정다운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매니저	강소라 강소정 윤빛나리 이수진
티켓매니저	이한별 최시윤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김현희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최희승 장혜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박소연

2023 두산아트랩 공모 안내

두산아트랩은
공연·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연

접수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7월 13일(수)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900만 원)
- 발표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 장르 제한 없음
-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공연기간

2023년 1-3월

선정인원

- 8명 내외
- * 개인만 신청 가능
 - * 예술단체인 경우 대표 창작자 이름으로 신청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전시

접수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8월 1일(월)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두산아트랩 공모선정자 전시참가
(제작지원비: 1명(팀)당 300만 원)

대상

- 만 35세 이하
- 한국 국적
- 개인전 1회 이상

전시기간

2023년 1-2월(선정작가 그룹전)

선정인원

5명(팀)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포트폴리오

두산아트센터 2022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리지 뮤지컬 3.24-6.12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6.22-9.18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10.1-11.20
광부화가들 연극 12.1-2023.1.22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2 1.12-2.19
김세은 개인전 3.2-4.2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20-5.25
kdk 개인전 6.15-7.20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8.3-8.31
업체eobchae 개인전 9.21-10.19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6-12.17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강연 4.4-5.30
두산아트스쿨: 미술 4.21-5.26, 10.13-11.10
두산아트스쿨: 공연 7.29-8.19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24-12.2

공모 프로그램
공연
DAC Artist 1.5-1.25
공동기획 5.9-6.8
두산아트랩 공연 6.13-7.13

미술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1.3-1.13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3.15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2
어느 별 좋은 날 음악극 1.27-1.29
 작 박예슬 작곡 조한나 작창 안이호
낙지가 온다 연극 2.10-2.12
 작 김도영 연출 민새롬
(겨)털 연극 2.17-2.19
 작/연출 김유리
공의 기원 연극 2.24-2.26
 각색/연출 김유림
GV 빌런 고태경 연극 3.3-3.5
 각색/연출 이은비 대본구성/창작협력 김소정
유디트의 팔뚝 연극 3.10-3.12
 작/연출 안정민 가이급작창 김민정
한남 제3구역 연극 3.17-3.19
 작 원아영 연출 남선희
일본위 고독인 연극 3.24-3.26
 작/연출 연지아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당선자 없음 연극 5.17-5.29
 작/드라마터그 이양구 연출 이연주
웰킨 연극 6.7-6.25
 작 루시 커쿠우드 연출 진해정
편입생 연극 7.5-7.23
 작 루시 서버 연출 윤혜숙
공동기획
죽음의 집 연극 4.9-4.24
 작 윤영선 윤성호 연출 윤성호
오버더테창: 문전본풀이 판소리 8.6-8.20
 작창/각색/연출 박인혜

DAC Artist
추다혜 신작 음악 9.27-10.15
 구성/연출/출연 추다혜
클래스 연극 10.25-11.12
 작 진주 연출 이인수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윤혜숙 신작 연극 11.29-12.17
 연출 윤혜숙

